

기·출·의·파·급·효·과  
물리학 1(하)



**물리학 1(하)**  
기출의 파급효과

# 물리학 1(하)

---

Chapter 6. 열역학\_ 008p

Chapter 7. 특수 상대성 이론\_ 058p

Chapter 8. 전기력\_ 100p

Chapter 9.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_ 128p

Chapter 10. 전반사\_ 196p

Chapter 11. 파동의 간섭\_ 236p

Chapter 12. 광전 효과\_ 258p

# 저자의 말

---

안녕하세요. 오르비 파급효과 물리팀입니다. 수학 교재의 인기에 이어 2020년 여름, 물리학까지 팀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물리학 교재는 집필 첫 해인데도, 기대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바로 교재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 1. 물리학 1 기초를 푸는 데 필요한 모든 개념과 실전개념, 도구와 태도를 담았습니다.

수능 물리학 1의 성격에 정확히 맞게끔, 실력과 점수 향상을 위한 도구와 태도를 모두 담았습니다. 이 교재를 소화한다면 물리학 1의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과 태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리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적 도구들을 더하여 실력을 완성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실전 개념서지만 그 어떤 교재보다 교과서의 기본 원리가 깊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순서를 재구성하여 교재를 설계하였습니다.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전적인 개념이나 실전적 도구들은 따로 정리하여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챕터의 칼럼, 예제, 예제의 해설과 분석을 통해 학습하신 내용을 유제를 통해 점검하시면 더욱 큰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필연적인 사고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올해 치러질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항에 적용되는 기본에 충실한 굵직한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책은 문항 출제 의도 파악과 기본기에 충실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물리 학습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왜 이렇게 풀었지?" 그 필연성의 가이드라인을 담았습니다.

### 3. 수능/평가원/교육청 주요 문항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예제, 유제에 수능/평가원/교육청 주요 기출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예제는 도구와 태도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좋은 문항들로, 가장 중요한 최종요 기출문제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문과 함께 있는 예제들은 물리학 1 교재의 경우 (상), (하) 합하여 대략 100문제 정도입니다.

예제에 있는 문제 수만으로 부족함을 느끼실 분들을 위해 기출에 대한 태도와 도구를 체화시키기 위해 유제를 충분히 넣었습니다. 유제는 예제에 넣기에는 우선순위가 밀렸으나 꼭 수록할 필요성이 있는 주요 문항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유제의 경우, 물리학 1 교재의 경우 유제는 (상), (하) 합하여 대략 180문제 정도입니다.

본문 속 예제뿐만 아니라 유제들도 단순 단원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출에 대한 태도와 도구를 기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 4. 해설이 학생 중심적이고 또 실전적입니다.

물리학 1의 과목 특성상, 해설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쓰기 편한 풀이와, 학생 입장에서 문항을 맞닥뜨렸을 때 좋은 풀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의 해설을 쓸 때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학생 입장에서 최고의 풀이를 수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해설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와 함께,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일관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전적인 풀이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해설은 다른 책과 달리, 처음 문제를 보고 문제의 방향성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넘버링을 통해 단계를 나누어 해설을 썼습니다. 예제와 유제의 해설 모두 실전적이고 학생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예제의 경우 해설을 정말 자세하게 작성했습니다. 예제와 유제의 해설까지 꼼꼼히 학습하신다면 생각의 틀이 올바르게 잡힐 것입니다.

예제 해설과 유제 해설은 단계별로 분리되어 있어 가독성이 좋아 이해가 더욱 쉽습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태도와 도구들을 어떻게 쓰는지 과외처럼 매우 자세히 알려줍니다. 유제는 칼럼과 예시들을 잘 학습했다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리학 1 50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은 봐야 할 기출, 기출의 파급효과와 함께 합시다.

## 기출의 파급효과 수학



[atom.ac/books/7608](http://atom.ac/books/7608)

기출의 파급효과 수학 시리즈

## 파급의 기출효과



[cafe.naver.com/spreadeffect](http://cafe.naver.com/spreadeffect)

파급의 기출효과 NAVER 카페

기출의 파급효과 수학은 기출의 파급효과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서입니다.

기출의 파급효과 수학은 어려운 3점~4점 기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도구와 태도'를 정리합니다. '꼭 필요한 도구와 태도' 체화를 위해 관련도가 높은 준킬러 이상 기출을 바로바로 보여주며 체화 속도를 높입니다. 단시간 내에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재가 설계되었습니다.

학습하시다 질문이 생기신다면 '파급의 기출효과' 카페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재 인증을 하시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브, 슬기롭다, 파급효과, 출기능수 등등 오르비 저자분들이 올리시는 학습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저자 분들의 콘텐츠 질문 답변도 교재 인증 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검증된 우수한 컨설팅 팀이 정리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시, 수시 입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질문은 가입하시기만 하면 팀장 및 팀원분들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https://cafe.naver.com/spreadeffect/15>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CHAPTER

# 08 전기력

최근 들어 평가원 물리학I 4페이지 19번에 등장하고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는 등 갑작스럽게 난이도가 높아진 단원이다. 2021학년도 평가원 물리학I 시험지를 보면, 이 단원에서 개념을 묻는 문제 여러 개와 직접 계산을 해야 하는 킬러 문제 하나가 출제된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되면 실수하기 쉽고, 고난도 문제는 접근을 잘못하면 하루 종일 계산만 하다가 끝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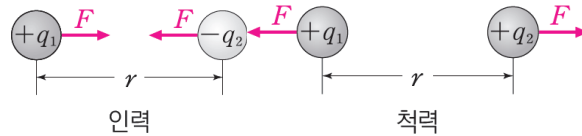
4페이지에 나오는 문항의 경우, 물론 단순 계산으로도 풀 수는 있겠지만 이 책에서 설명해줄 대칭성과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하면 실수 없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다.

비역학 킬러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역학 킬러 문항을 풀어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잊지 말자.

## ◆ 전기력

### ◆ 1. 전기력의 정의

전기력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인력과 척력 두 종류가 있다. 다른 종류를 띤 전하들 사이에는 인력이, 같은 종류를 띤 전하들 사이에는 척력이 작용한다.



전기력 :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하량이 각각  $q_1$ ,  $q_2$ 인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가  $r$ 일 때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 는 쿨롱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다.

$$F = k \frac{q_1 q_2}{r^2} \quad (\text{진공 중에서 쿨롱 상수 } k = 8.99 \times 10^9 \text{N} \cdot \text{m}^2/\text{C}^2)$$

☞ 전기력 chapter에서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대표적인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고 넘어가자.

1. 많은 학생들이 전기력을 “전기”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뒤에서 나올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계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은 무시해도 된다는 성질을 전기력 chapter에 적용하는 걸 어색하게 느끼기 쉽다. 이 책을 읽는 학생들은 잠시 멈춰서 한 번만 생각하고 넘어가자.

전기력도 힘이다.

2. 전기력 공식을 뒤에서 볼 자기력 공식과 헷갈려 분모에  $r$ 을 넣고서 당황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시험장에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멘탈에 지장이 생기기 쉽다. 주의하자.



## ◆ 2. 전기력 표시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전기력을 표시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1) 전기력의 방향은 화살표로 표시한다.



역학 단원의 속도/가속도와 달리 방향을 부호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해 +방향, -방향의 구별이 위험하다는 말이다. 이 단원에서는 전하의 부호가 +, -로 사용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헷갈리지 않게 방향 구별을 화살표로 하자.

(2) 전기력의 크기를 다룰 때는 상댓값을 이용한다.

전기력  $F$ 를 계산한 결과에서 분자의  $k$ ,  $Q^2$ 과 분모의  $d^2$ 은 결국 상수인 셈이니 임의의 기호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  $d$ 만큼 떨어진 전하량 크기의 곱이  $1Q^2$ 인 두 전하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 라 하면, 거리  $2d$ 만큼 떨어진 전하량 크기의 곱이  $2Q^2$ 인 두 전하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상댓값을 통해  $\frac{1}{2}f$ 라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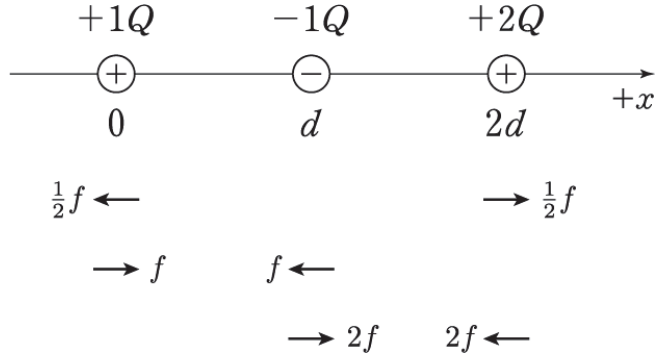
(3) 아래첨자를 이용하여 전기력을 표시할 수 있다.



$F_{AB}$  혹은  $f_1$ ,  $f_2$ 처럼 아래첨자를 이용하여 전기력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A가 B에게 가하는 힘을  $F_{AB}$ 와 같이 표시하는데, 이는 세 개 이상의 전하 사이의 힘들 중에서 각각 누가 누구에게 작용하는 힘인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줄을 맞춰서 전기력을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3번이 싫은 학생들에게 아래 그림처럼 줄을 맞춰서 표시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1Q$ ,  $-1Q$ ,  $+2Q$ 의 세 전하가 일직선상에 차례로  $d$ 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Q$ 와  $+2Q$ 의 상호 작용에 의한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을 각 전하 밑에 표시하고,  $+1Q$ 와  $-1Q$  사이의 상호작용은 조금 내려서 표시,  $-1Q$ 와  $+2Q$  사이의 상호작용은 조금 더 내려서 표시하는 식이다. 이후 각각의 전하에 대해 세로로 적힌 힘들을 합하면 알짜힘을 구할 수 있다.

#### ☞ 전기력 표시 방법 정리!

1. 전기력의 방향은 화살표로 표시한다.
2. 전기력의 크기를 다룰 때는 상댓값을 이용한다.
3. 아래첨자를 이용하여 전기력을 표시할 수 있다.
4. 줄을 맞춰서 전기력을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기력 chapter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임의의 전하가 받는 총 전기력이 합이 0인 지점 찾기
2. 작용-반작용의 법칙 적용하기
3. 변화량 풀이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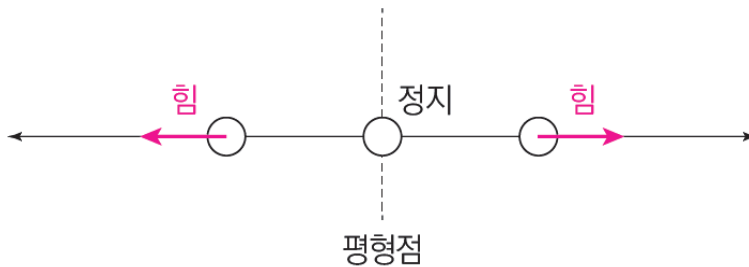
이제 이 세 가지 핵심 지점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 3. 평형점 찾기

전기력 문제의 풀이는 각각 전하의 부호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하들 각각의 부호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누가 누구를 당기고 미는지를 알아내는 것과 같은데, 세 개 이상의 전하가 나올 때 전하들의 부호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 설명할 과정 없이 접근했다간 쉽게 헷갈릴 수 있다. 각각의 전하들의 부호를 모를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하를 두 개씩 쳐다보면서 **평형점을 찾는 것이다**.

평형점을 찾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다. 두 전하의 부호가 같다면 그 둘 사이에, 반대라면 둘의 연장선상에 평형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까지는 알 수 없기에 계산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정해 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정확한 위치를 확정할 때는 전하량이  $+1C$ 인 임의의 전하 한 개<sup>14)</sup>를 내부 또는 외부에 두고 전기력 공식을 두 번 계산해 주면 된다.



14) 평형점은 임의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항상 0이 되는 지점이므로, 꼭 전하량의 크기가  $+1C$ 일 필요는 없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본 책에서는  $+1C$ 로 두는 것이다.

### (1) 평형점을 찾으면 알 수 있는 특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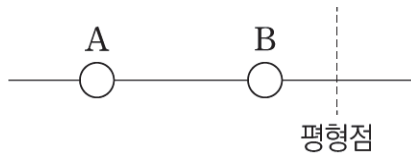
평형점을 찾으면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

먼저, 평형점을 경계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하가 역전된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정된 두 전하 A, B가 있는데 움직이는 전하 C를 동일 직선상에 놓았다 하자. 이때 C가 A, B가 만드는 평형점을 지나가면, 그 지점을 경계로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변한다. 즉,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하가 바뀐 것이다.

다음으로, 평형점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점전하의 전하량의 크기가 나머지 하나보다 크다. 이걸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자.

〈예시 1 : 평형점이 외부에 있을 때〉

그림과 같이 고정된 두 점전하 A, B가 있을 때 B의 오른쪽에 평형점이 있다고 생각하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가 세지는데, 평형점으로부터 A가 B보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둘이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가 같으므로 A의 전하량의 크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예시 2 : 평형점이 내부에 있을 때〉

그림과 같이 고정된 두 점전하 A, B 내부의 평형점이 B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자.



마찬가지로 거리 that 가까워질수록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가 세지는데, 평형점으로부터 A가 B보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둘이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가 같으므로 A의 전하량의 크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 실수 주의!

실전에서 문제를 빠르게 풀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가까워질수록 세기가 세진다”만 남아, “가깝다 = 크다”로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다. 위 예시들 상황으로 생각하면 평형점이 B랑 가까우므로 B의 전하량의 크기가 A보다 크다고 풀고 넘어간다는 말이다. 이걸 진짜 조심해야 한다. 진짜.

(2) 평형점 주변에 고정되지 않은 전하를 두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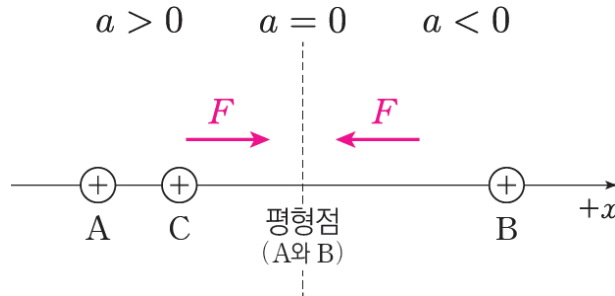
평형점 주변에 고정되지 않은 전하를 두면, 그 전하는 평형점을 향해 움직이지만 평형점을 통과하고 지나가지, 평형점에서 정지하지는 않는다.

평형점에선 전기력에 의한 알짜힘이 0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인데, 이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 문제를 풀다 발문에 “점전하들 사이에 입자를 두었더니 서서히 움직여서 정지했다.”라는 표현을 보고 그 입자가 정지한 위치를 평형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역학 단원을 잘 생각해보면  $+x$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이  $+x$ 에서  $-x$ 로 변했다고 물체가 멈추지 않는다. 속력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다 점점 감소할 뿐이고, 물체가 실제로 정지하는 지점은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0인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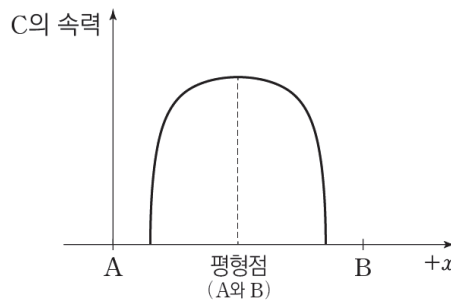
전기력 단원도 마찬가지인데,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자.

그림과 같이 고정된 양(+ )전하 A, B가 만드는 평형점 왼쪽에 고정되지 않은 양(+ )전하 C를 두었다.



C는 평형점 왼쪽에선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이때 평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가속도  $a > 0$ 이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이후 평형점에서 C의 속력은 최대가 되고, 속력이 점점 감소하여 평형점에서  $+x$  방향으로 더 운동한 뒤 정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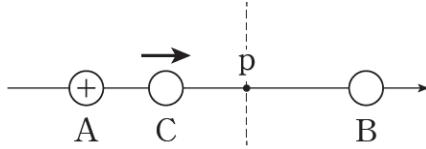
위치에 따른 C의 속력을 대강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건 팁인데, 앞서 봤듯이 어떤 입자가 움직이다 멈추면 평형점은 입자의 정지 지점을 기준으로 처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에 있다. 위의 경우에는 C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다 멈췄으니 평형점은 정지 지점의 왼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습 문항 1

그림과 같이 점전하 A, B가 각각 고정되어 있다. A는 양(+)전하이다. A, B사이에 임의의 입자 C를 놓았더니, B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여 C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는 지점인 p를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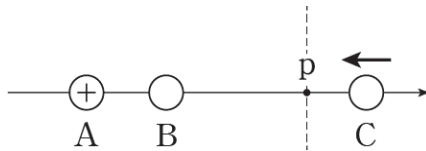


1-1. B, C 각각의 부호를 구하시오.

1-2. C의 알짜힘의 방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하는 p를 기점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쓰시오.

### 연습 문항 2

그림과 같이 점전하 A, B가 각각 고정되어 있다. A는 양(+)전하이다. A, B 바깥에 임의의 입자 C를 놓았더니, B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여 C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는 지점인 p를 지났다.



2-1. B, C 각각의 부호를 구하시오.

2-2. C의 알짜힘의 방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하는 p를 기점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쓰시오.



1-1) 둘 다 양(+)전하이다.

A와 B 사이에 C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0인 지점 p가 있으므로, A와 B의 부호는 같다. 따라서 B는 양(+)전하이다. 그리고 지점 p를 기준으로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데, 왼쪽에선 A가 C의 방향에 B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C는 A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므로 C도 A와 부호가 같다. 따라서 C도 양(+)전하이다.

1-2) C가 p의 왼쪽에 있을 때는 A가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B가 결정한다.

(※ 변외 : 이 연습 문항에선 C가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는 지점 p를 지난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C는 p에서 가속도가 0이다”, “p를 지나면서 C의 가속도 방향이 바뀐다” 등으로 바꿔 표현해줄 수도 있다.)

2-1) 둘 다 음(-)전하이다.

A와 B 바깥에 C가 받는 전기력이 0인 지점 p가 있으므로, A와 B의 부호는 반대이다. 따라서 B는 음(-)전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B의 전하량의 크기가 A보다 크다면 C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될 수가 없으므로<sup>15)</sup> A의 전하량의 크기가 B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지점 p를 기준으로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데, B에 한없이 가까운 지점에 C를 놓게 되면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B가 결정하게 되므로, C가 p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점전하는 A에서 B로 변한다.

따라서 p의 오른쪽에서 C는 A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둘의 부호는 반대이고, C는 음(-)전하이다.

2-2) C가 p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A가 결정하고, 왼쪽에 있을 때는 B가 결정한다.

15) 만약 B의 전하량의 크기가 A보다 크다면, 쿨롱 법칙에 따라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므로 C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더 작은 B가 C에 가하는 힘이 항상 더 크게 된다. 따라서 C가 받는 전기력의 합은 0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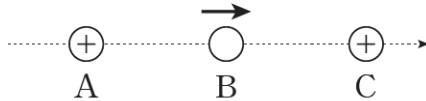
### (3) 작용-반작용의 법칙

전기력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따라서 당연히 힘을 주고받는 전하들 사이에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한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전하들 전체를 하나의 계로 잡았을 때, 전하들끼리 작용하는 힘과 그 반작용은 계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이므로 상쇄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각 전하들이 받는 합력의 방향도 유추할 수 있다.

간단한 연습 문항을 풀면서 이해해보자.

#### 연습 문항

그림은 고정된 두 점전하 A, C 사이에 점전하 B를 가만히 놓았더니, B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고,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0이다.



1.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2. B의 부호를 결정하십시오.
3. B, C의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하십시오.
4.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와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하십시오.
5. A, C사이 평형점은 현재 B로부터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그림에 표시하십시오.





1. A, B, C 전체를 하나의 계로 볼 때 외부력이 없으므로 합력은 0이다. 따라서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인 것을 생각하면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왼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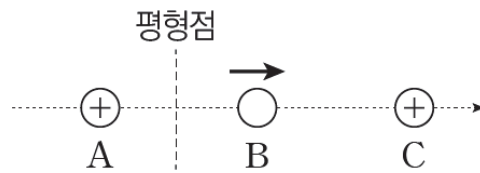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걸 적용해보자.

2. A와 C는 부호가 같으므로 서로 미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런데 C가 A를 왼쪽으로 밀고 있음에도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라는 건 B가 A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B는 음(-)전하이다.

3. C가 B보다 A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A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B와 같다. 따라서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쉽게 설명하면 평형점으로부터 거리는 C가 B보다 멀기 때문에 C의 전하량이 B보다 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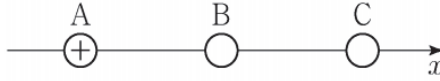
4. B에 작용하는 알짜힘과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서로 상쇄되어 전체 계의 합력이 0이 된다. 따라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5. A와 C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둘 사이에 평형점이 무조건 존재한다. 그런데 현재 B는 A, C 모두와 부호가 다름에도 C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B의 전기력의 방향이 C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A와 C가 만드는 평형점은 현재 B보다 왼쪽에 위치한다.



예제(1) 21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그림과 같이  $x$ 축상에 점전하 A, B, 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다. 양(+)  
전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B는 음(-)전하이다.
- ㄴ.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 ㄷ.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0. 평형점 찾고 성질 적용하기

B와 C에 의해 생긴 평형점에 양(+)  
전하 A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B와 C 외부에 평형점이 있다는 뜻이므로, B와 C의 전하의 부호가 다를 수 있다.

1. 계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은 상쇄됨을 이용하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x$ 방향이라 했는데, 전체를 하나의 계로 보았을 때 내부력의 합은 0이 되어야 하므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ㄷ 틀림)

2. 가정해서 모순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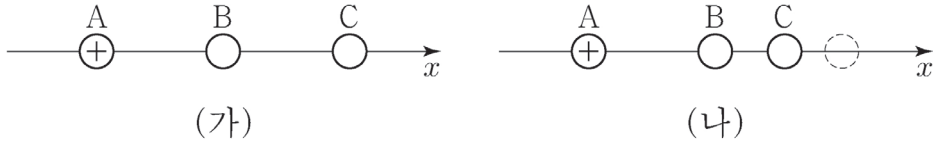
만약 B와 C의 부호가 각각 +, -라면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각각  $+x$ 방향,  $-x$ 방향이 되어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B는 음(-)전하, C는 양(+)  
전하이다. (ㄱ 맞음)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A가 B를 당기는 힘이 C가 B를 당기는 힘보다 강하다. 따라서 A의 전하량의 크기가 C보다 크다. (ㄴ 틀림)

정답 : ㄱ

예제(2) 21학년도 수능 19번

그림 (가)와 같이  $x$ 축상에 점전하 A, B, 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양(+전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C를  $-x$ 방향으로 옮겨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C는 양(+전하)이다.
- ㄴ.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 ㄷ.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0. 평형점 찾고 성질 적용하기

(가)에서 B와 C가 만드는 평형점에 A가 위치한 것을 보아, 평형점이 B와 C 외부에 존재하므로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에서 더 먼 곳에 평형점이 위치하므로 C의 전하량의 크기가 B보다 큼을 알 수 있다.

(나)에서 A와 C가 만드는 평형점에 B가 위치한 것을 보아, 평형점이 A와 C 내부에 존재하므로 둘의 부호는 같다는 점에서 C가 양(+전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ㄱ 맞음) 또한 A에서 더 먼 곳에 평형점이 위치하므로 A의 전하량의 크기가 C보다 큼을 알 수 있고, 전하량의 크기는  $A > C > B$ 이다. (ㄴ 틀림)

1. 계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은 상쇄됨을 이용하기

B는 음(-)전하이므로, (가)에서 B를 당기는 전기력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므로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따라서 전체를 하나의 계로 잡고 그 내부력의 합이 0임을 생각하면,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임을 알 수 있다. (ㄷ 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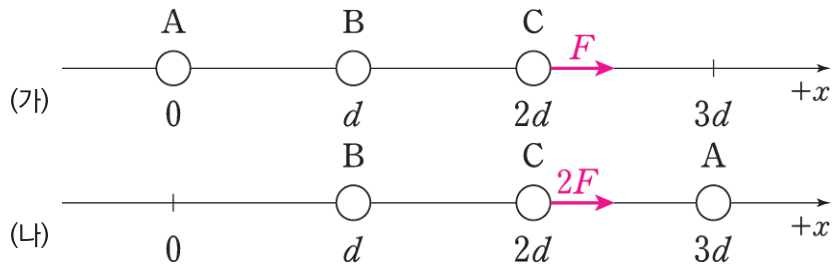
정답 : ㄱ

## 변화량 풀이

앞서 본 경우에는 방향과 크기의 대/소 비교만을 다뤘지만, 아예 크기를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 경우엔 전기력 공식을 하나하나 넣어도 정답은 물론 나오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므로, 작용-반작용의 법칙과 변화량 풀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문제를 풀다보면 고정된 전하의 위치를 출제자가 직접 옮기는 문제를 종종 만나게 된다. 만약 시험 도중에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 공식에 숫자를 넣고 계산을 시작하면, 주구장창 계산만 하다가 시험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변화량 풀이를 배울 것이다. 이 풀이의 요지는 **변하지 않는 값을 굳이 계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전하의 위치가 옮겨질 때는 **원래 위치의 전하가 사라지고 새로운 위치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전하가 사라지고 생겨났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다음 예시를 살펴 보자.



A가 0에서  $3d$ 로 이동해서 C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F$ 에서  $2F$ 로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숫자를 대입하며 끼워 맞추거나 어찌할 줄 모르기 쉬운데, 우리는 이럴 때 침착하게 “변한 것만 쳐다보니 A가 0에서 사라지고  $3d$ 에서 생겨났다”라고 이해하자. A와 C가  $d$ 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_0$ 라 하면 우선 방향은 모르더라도 C의 왼쪽에서  $\frac{f_0}{4}$ 가 사라지고 오른쪽에서  $f_0$ 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A가 C에 가하는 힘이  $\frac{5f_0}{4}$ 만큼 변해<sup>16)</sup> 결국 오른쪽으로  $F$ 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f_0 = \frac{4}{5}F$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와 C는 서로 당기고 있으므로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 ☞ 변화량 풀이의 핵심

1. 변하지 않는 값은 문제에서 필요로 하기 전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2. 전하가 옮겨지면 원래 위치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위치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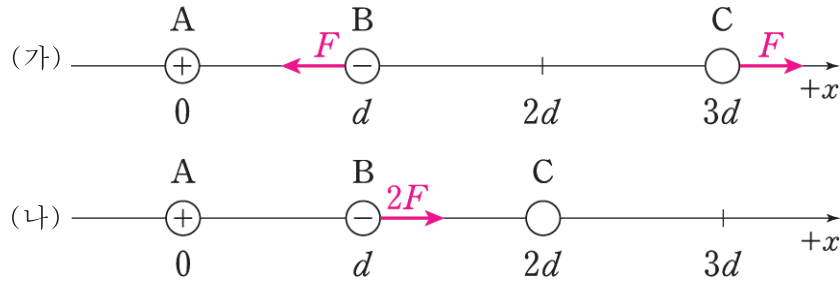
16) 쉽게 생각하면  $-(-\frac{f_0}{4}) + f_0$ 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푸는 물리학 1 전기력 문제에선 전하 두 개를 한 번에 옮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 번에 전하 하나씩 옮기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나머지 전하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문제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위치가 변하지 않은 전하들까지 고려해가며 문제를 풀 이유가 없다.

연습 문항을 풀면서 이해해보자.

### 연습 문항

그림 (가), (나)는 점전하 A, B, C가  $x$ 축 상에 고정되어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양(+)  
전하, B는 음(-)전하이다. (가)에서는 C에  $+x$ 방향으로 크기가  $F$ 인 전기력이, B에는  $-x$ 방향으로 크기가  $F$ 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나)에서는 B에  $+x$ 방향으로 크기가  $2F$ 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1. C의 전하의 부호를 구하고 A, B, C의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2. (가)에서 각각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시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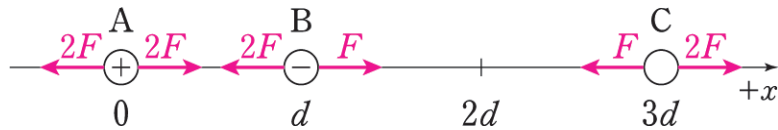


먼저 (가)를 보면 B의 왼쪽에 B와 C 둘의 평형점이 존재하며 거기에 A가 위치한 상황이다. 따라서 B와 C의 부호는 반대이고, 전하량의 크기는 C가 더 크다. 즉 C는 양(+)  
전하이고, 전하량의 크기는  $C > B$ 이다.

B를 기준으로 (가)와 (나)는 C의 위치만 변했으므로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변화량은 온전히 C의 책임이다. B와 C가  $d$ 만큼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_0$ 라 하면 (가)에서 (나)로 변할 때 B 입장에서는  $+x$ 방향으로  $\frac{f_0}{4}$ 가 사라지고 다시  $+x$ 방향으로  $f_0$ 가 생겼으므로 결국  $+x$ 방향으로  $\frac{3}{4}f_0$ 가 생긴 것이다. 이때 B의 알짜힘은  $-x$ 방향으로  $F$ 에서  $+x$ 방향으로  $2F$ 가 되었으므로 결국  $+x$ 방향으로  $3F$ 가 변한 것이니  $f_0 = 4F$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에서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  $+x$ 방향  $4F$ 인데, 실제 알짜힘은  $+x$ 방향  $2F$ 이므로 A와 B가  $d$ 만큼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2F$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하량의 크기는  $C > A$ 이다.

이를 토대로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해 (가) 그림의 모든 힘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A가 B보다 멀어도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A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전하량의 크기는  $A > B$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하량의 크기는  $C > A > B$ 이다.

예제(3) 20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그림과 같이 점전하 A, B가 각각  $x=0$ ,  $x=3d$ 에 고정되어 있다. A는 음(-)전하이다. 양(+) 전하를 띤 입자 X의 위치를 바꾸어 가며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x=-d$ ,  $x=d$ ,  $x=4d$ 에서 각각  $F_1$ ,  $F_2$ ,  $F_3$ 이었다.



$F_2 > F_3 > F_1$ 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 ㄴ.  $x=d$ 와  $x=2d$  사이에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 ㄷ.  $x=-d$ 에서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천천히 따라가보자. 이 문제는, 문제만 보고서 필연적으로 시작되는 0번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0번 없이 <보기>의 ㄱ을 먼저 보고 풀이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해설을 1번부터 시작한다.

**1. A와 B의 전하량 크기 비교하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F_3 > F_1$ 인데, 만약 A의 전하량의 크기가 B와 같거나 B보다 크다면 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B의 전하량의 크기는 A보다 크다. (ㄱ 맞음)

(1번 보충 설명) 대소비교가 헷갈릴 때, 같을 때를 가정해서 문제의 조건에 맞게 조정해나가면 좀 더 쉽게 풀릴 때가 있다. 이 문제에서도 해설의 1번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F_1 = F_3$ 이 자명하다. 이때  $F_3 > F_1$ 이 되려면 둘의 전하량의 크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B의 전하량의 크기가 A보다 커지면 될 것이다.

---

**2. 변화량 풀이 이용하기**

양(+)전하를 띠는 입자 X가  $x = -d$ 에 있을 때와  $x = d$ 에 있을 때 A가 X에 가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으므로,  $F_1$ 과  $F_2$ 의 크기 차이는 점전하 B가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X 입장에서 변한 것은 B에게 받는 힘뿐이다.) B가 X에 가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A가 X에 가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일치할 때 X가 받는 알짜힘의 세기가 가장 세질 것이므로,  $F_2 > F_1$ 에서 B는 양(+)전하이다.

(2번 보충 설명) B의 전하량의 크기가 A에 비해 어어어엄청나게 커서 B와 가까운  $x = d$ 에서 X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F_2$ 가 멀리 떨어진  $F_1$ 보다 큰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B와 가장 가까운  $x = 4d$ 의  $F_3$ 의 세기가 가장 세야 하는데, 이는  $F_2 > F_3$ 이라는 문제 조건에 모순이다.

---

**3. 평형점 찾기**

A와 B의 전하의 부호가 반대이고 B의 전하량이 더 큰 경우이므로, 평형점은 A의  $-x$ 방향에 생긴다. (ㄴ 틀림)



#### 4. c선지 풀이

##### 1) 논리적 풀이

c은 평형점이  $x = -d$ 의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를 찾으면 풀리므로, 해설 1번 보충 설명에서 했듯이 먼저  $x = -d$ 가 평형점일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B의 전하량의 크기는 A의 16배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서 2번 보충 설명과 같이, B의 전하량의 크기가 A에 비해 너무 커져서  $F_3 > F_2$ 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A의 전하량의 16배는 B의 전하량보다는 커야 하므로 평형점은  $x = -d$ 의  $-x$ 방향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x = -d$ 에서는 입자 X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전하가 A이므로,  $x = -d$ 에서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c 틀림)

##### 2) 계산적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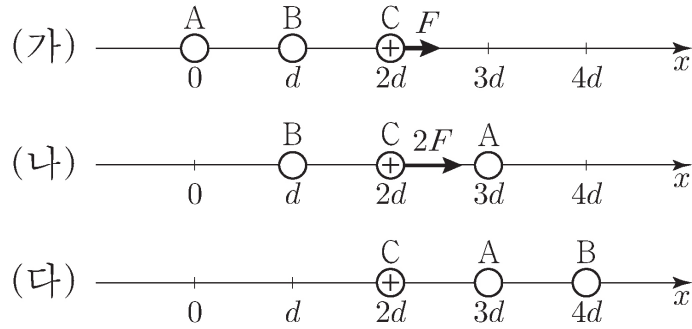
A와 B가 거리  $d$ 만큼 떨어진 채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각각  $f_A, f_B$ 라 하자. 문제의 조건에 따라  $F_2 > F_3 > F_1$ 이므로, 풀어서 나타내면  $f_A + \frac{1}{4}f_B > f_B - \frac{1}{16}f_A > |f_A - \frac{1}{16}f_B|$ 이다.

여기서  $F_2 > F_3$ 을 보면  $f_A > \frac{12}{17}f_B > \frac{1}{9}f_B$ 임을 알 수 있고,  $F_1$ 의 방향에 A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F_1$ 의 방향은  $+x$ 방향이다. (c 틀림)

정답 : 7

예제(4) 21학년도 9월 평가원 19번

그림 (가), (나), (다)는 점전하 A, B, C가  $x$ 축 상에 고정되어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양(+)전하인 C에  $+x$ 방향으로 크기가  $F$ 인 전기력이, A에는 크기가  $2F$ 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나)에서는 C에  $+x$ 방향으로 크기가  $2F$ 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다)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 |   | <u>크기</u>     | <u>방향</u> |   | <u>크기</u>     | <u>방향</u> |
|---|---------------|-----------|---|---------------|-----------|
| ① | $\frac{F}{2}$ | $+x$      | ② | $\frac{F}{2}$ | $-x$      |
| ③ | $F$           | $+x$      | ④ | $F$           | $-x$      |
| ⑤ | $2F$          | $+x$      |   |               |           |



### 0. 변화량 풀이 이용하기

(가)에서 (나)로 바뀌면서, C의 입장에서 변한 건 A의 위치밖에 없다. 따라서  $+x$  방향으로  $F$ 만큼의 알짜힘 증가는 A가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 1. 상댓값으로 전기력 표시하기

A가 C에  $d$ 만큼 떨어진 상태로 가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 라 하자. A가 C에 가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  $\frac{1}{4}f$ 이고 (나)에서  $f$ 이다.

### 2. 변화량 풀이 이용하기

A가 양(+)전하이고, A와 C 사이에 척력이 작용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가)에서 (나)로 변하면서 C는  $+x$  방향으로 밀어주던  $\frac{1}{4}f$ 가 사라지고  $-x$  방향으로 미는  $f$ 가 생긴 셈이므로 총합  $-x$  방향으로  $\frac{5}{4}f$ 가 더해진 셈이다. 그러나 이는 C가  $+x$  방향으로 알짜힘의 크기가 증가한 것에 모순이므로 A는 음(-)전하이다.

앞서 했던 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C의 알짜힘의 크기는 (가)에서 (나)로 변하면서  $+x$  방향으로  $\frac{5}{4}f$ 가 증가했으므로  $F = \frac{5}{4}f$ 이다. 이제 (나)에서 A가 C를  $+x$  방향으로 당기는 힘은  $\frac{4}{5}F$ 이므로, B는 C를  $+x$  방향으로  $\frac{6}{5}F$ 의 힘으로 밀어내야 한다. 따라서 B는 양(+)전하이다.

### 3.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구하기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남아있다. (가)에서 A가 받는 알짜힘의 크기가  $2F$ 라는 것인데, 이것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둘 다 매우 중요한 관점이므로 받아들이려 노력해보자.

#### (1) 단일 전하 관점

우선 C에 의해서 A는  $+x$  방향으로  $\frac{1}{5}F$ 의 세기로 당겨진다. 이때 A와 B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므로, B가 A를  $\frac{9}{5}F$ 로 당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전체 계 관점

(가)에서 B와 C가 모두 양(+)전하이므로, 이들의 왼쪽에 있는 음(-)전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따라서 A, B, C를 모두 하나의 계로 볼 때 외부력은 없으므로 합력이 0인 것을 생각하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x$  방향으로  $3F$ 이다. B는 C를  $+x$  방향으로  $\frac{6}{5}F$ 의 힘으로 밀어내므로, 따라서 A가 B를  $-x$  방향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frac{9}{5}F$ 이다.

### 3. 정답 결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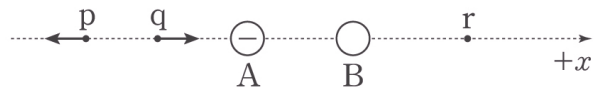
이제 (다)를 보면 C가 A를  $-x$ 방향으로  $\frac{4}{5}F$ 만큼, B가 A를  $+x$ 방향으로  $\frac{9}{5}F$ 만큼 당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x$ 방향  $F$ 이다.

정답 : ③

# CHAPTER 08 유제

## 01 15학년도 6월 평가원 9번

그림은  $x$ 축 상에 고정된 두 점전하 A, B에 의해 점 p, q에서의 임의의 양(+)  
전하가 받는 합력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음(-)전하이므로, p, q, r는  $x$ 축 상의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B는 양(+)  
전하이므로.
- ㄴ.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 ㄷ. r에 임의의 양(+)  
전하 C를 두었을 때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x방향이다.

## 02 15학년도 수능 9번

그림과 같이  $x$ 축 상에 고정된 세 점전하 A, B, C가 있다. A와 C에 의한  $x$ 축 상의 평형점은 점 p이고, A와 B에 의한  $x$ 축상의 평형점은 점 q이다. 점 q에 임의의 양(+)-전하 D를 놓았을 때, D가 받는 B와 C에 의한 합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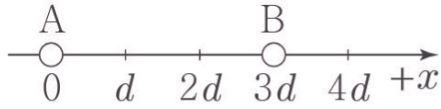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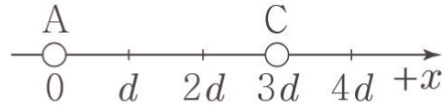
- ㄱ.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 ㄴ. A는 양(+)-전하이다.
- ㄷ. 점 p에 D를 놓았을 때, D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03** 16년 4월 교육청 10번

그림 (가)와 같이  $x=0$ ,  $x=3d$ 인 지점에 점전하 A, B를 고정시켰더니 A와 B에 의한  $x$ 축상의 평형점의 위치는  $x=4d$ 이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B 대신  $x=3d$ 인 지점에 점전하 C를 고정시켰더니 A와 C에 의한  $x$ 축상의 평형점의 위치는  $x=d$ 이고, 이때  $x=2d$ 인 지점에 양(+전하 D를 두면 D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_\_\_\_\_ <보 기>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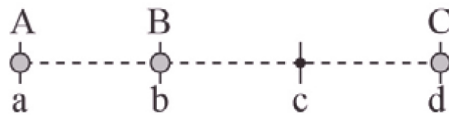
ㄱ.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다.

ㄴ. C는 양(+전하)이다.

ㄷ.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04** 16년 7월 교육청 11번

그림과 같이 점 a, b, c, d가 일직선상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a, b, d에 점전하 A, B, C가 고정되어 있다. A, B, C가 만드는  $x$ 축 상의 평형점은 c이며, B와 C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B와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이 왼쪽 방향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_\_\_\_\_ <보 기> \_\_\_\_\_

ㄱ.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ㄴ. A와 B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ㄷ. C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CHAPTER  
08 해설

**01** 15학년도 6월 평가원 9번

정답 : ㄱ, ㄴ, ㄷ

1. p와 q에서 임의의 양(+)전하가 받는 합력의 방향이 다른 것을 보아, 두 지점 사이에 평형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평형점이 A와 B 외부에 있으므로, A와 B의 전하량의 종류는 반대인데, A가 음(-)전하이므로 B는 양(+)전하이다. (ㄱ 맞음)
2. 평형점으로부터의 거리는 B가 A보다 멀다. 따라서 A의 전하량의 크기는 B보다 작다. (ㄴ 맞음)
3. r에 임의의 양(+)전하 C를 두면, A는 C를  $-x$ 방향으로 당기고 B는 C를  $+x$ 방향으로 민다. 그런데 C와의 거리는 B가 A보다 가까우면서, 전하량도 B가 A보다 크므로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에 B가 A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B와 C의 전하의 부호가 양(+)전하로 같으므로, 따라서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ㄷ 맞음)

**02** 15학년도 수능 9번

정답 : ㄱ

1. A와 C가 만드는 평형점이 p이므로 A와 C의 전하의 부호는 반대이고, 평형점으로부터 C가 A보다 멀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2. A와 B가 만드는 평형점이 q이므로 A와 B의 전하의 부호는 반대이고, 평형점으로부터 A가 B보다 멀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따라서 전하량의 크기는  $C > A > B$ 이다. (ㄱ 맞음)
3. B와 C의 전하의 부호는 같은데, D가 받는 B와 C에 의한 전기력의 방향이  $+x$ 방향이므로 B, C는 모두 양(+)전하이다. 따라서 B, C와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A는 음(-)전하이다. (ㄴ 틀림)
4. 점 p에 D를 놓았을 때, A와 C에 의해 D가 받는 합력은 0이다. 따라서 D가 받는 전기력은 B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므로, D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ㄷ 틀림)



### 03 16년 4월 교육청 10번

정답 : L, C

1. (가)에서 A와 B의 평형점이 A와 B 외부에 있으므로 A와 B의 전하의 부호는 반대이다.  
(ㄱ 틀림) 이때 평형점으로부터 A가 B보다 멀리 있으므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2. (나)에서 A와 C의 평형점이 A와 C 내부에 있으므로 A와 C의 전하의 부호는 같다. 이때 평형점으로부터 C가 A보다 멀리 있으므로,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따라서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하면  $C > A > B$ 이다. (ㄷ 맞음)
3. (나)에서  $x = 2d$ 지점에 양(+)전하 D를 두었을 때, D로부터 C가 A보다 가까운데 C의 전하량의 크기가 A보다 크다. 따라서 D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C의 영향을 받아  $-x$ 방향이 된 것이므로, C는 양(+)전하이다. (L 맞음)

### 04 16년 7월 교육청 11번

정답 : ㄱ, L, C

1. B와 C의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것 이외에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며, <보기>의 선지에서도 직접적인 부호의 종류를 묻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적당히 B와 C의 부호를 임의의 서로 다른 부호로 설정하면 된다.
2. B를 양(+)전하, C를 음(-)전하라 하자. (반대로 해도 상관없다.) 평형점을 찾기 위해, 어떤 양(+)전하 D를 c에 두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B와 C에 의해 D가 받는 합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이때 전체의 평형점이 지점 c가 되기 위해서는 D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A가 D를 B와 C의 합력만큼의 세기로 당겨야 한다. 따라서 A의 전하량의 크기가 가장 큰 것과 A가 음(-)전하인 것을 알 수 있다. (ㄱ, L 맞음)
3.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x$ 방향인 것이 문제에 나와 있고, A가 C보다 전하량의 크기가 크면서 B와 더 가까이 있으므로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도  $-x$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B, C 전체를 하나의 계로 잡았을 때 내부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방향이  $+x$ 방향이 되어야만 한다. (C 맞음)